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⑳ 출생의례 (下)



▶한줄 요약

부처님 당시 수달타 장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삼귀의와 오행을 받도록 가르치고, 자라서 지견(知見)이 생겼을 때 다시 계행(戒行)을 가르친다" 하였다. 불성(佛性)을 지닌 모든 아이가,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이다.

마을로 내려 오신 미륵…아이를 점지하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을로 내려오신 미륵'을 만날 수 있다. 폐사된 절터에서 업어온 부처님을 미륵으로 모시기도 하고, 특별한 암석이나 땅속 · 바다 · 강에서 나온 큰 돌을 세워놓고 미륵으로 받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에 모신 미륵을 아기 점지를 바라는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대상으로 섬긴 전통은 뿌리가 깊다.

미륵이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보편성을 지니게 된 것은, '구세주적 성격'과 '존재 방식의 친연성'에서 찾을 수 있다. 미륵은 석가모니 입멸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났을 때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는 미래불(未來佛)이다. 따라서 현실의 고난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미래에 강림하는 구세주적 성격을 지녔을 뿐 아니라, 수 세기에 걸쳐 권위를 벗어버린 채 민중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들 곁에 존재하는 친연성을 지녔다.

특히 기자신앙 대상으로서 미륵은 미래의 부처로,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영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구세주 탄생'과 개인의 '후손 탄생'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륵신앙은 언제나 현실을 개혁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할 실제의 영웅 탄생에 대한 갈망을 동반하고 있으니, 미륵이 아기 점지를 바라는 신격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셈이다.

미륵이 성전(聖殿)에서 마을로 내려가게 된 데는 남아선호사상이 큰 역할을 하였다. 민간에서는 우뚝한 바위가 있으면 남근을 닮았다 하여 기자석(祈子石)으로 여겼는데, 돌미륵 또한 일종의 기자석으로 수용한 것이다. 기자석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미륵이라면 영험함이 더욱 커질 것이고, 남근석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돌부처(미륵)의 코를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담론이 생긴 것도 '미륵=남근'이라는 남성성을 공유하면서, 코가 지닌 성적 상징의 효험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륵이 아닌 석불도 '돌로 만든 부처=미륵'으로 일반화되어 코를 잃었던 것이 근래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주술적 영험에 대한 믿음'이 '신성 훼손의 금기'를 이긴 셈인데, 이는 미륵과 남근의 결합에서부터 시작된 지극히 민속적인 역설이라 하겠다.

이처럼 민간에서 섬기는 대부분 미륵은 잠정적 남성으로 설정되게 마련인데, 반대로 여성의 정체성을 지닌 일련의 미륵도 살필 수 있다. 이를테면 경북 의성군 옥연리에는 '할머니 미륵'이 있는데, 이 미륵에게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먼 곳에서도 많은 이가 찾아와 정성을 들였다. 함평 아차마을의 미륵 역시 언제부턴가 '미륵할머니'로 불렸는데, 제단 앞에는 기자석 4개가 놓여 있어 자식 없는 이들이 찾아와 아들 낳기를 빌었다.

미륵의 남성성이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여성성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지닌 어머니를 뜻한다. 자식 점지를 비는 일에서 출산능력을 지닌 모성의 힘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미륵할머니'라 부르며 미륵을 여성으로 섬기는 유형도 자연스레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때 할머니 미륵은 출생을 주관하는 '삼신할머니'와도 통하는 것일 터이다.

이처럼 민간에서는 불교의 교리적 의미와 무관하게, 미륵을 그들의 논리에 따라 기자의 대상으로 수용해왔다. 특히 기자석과 돌미륵의 결합은 민간의 역동적 · 탄력적 사고에 따라 생겨난 독특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부처님과 아이들. 운문사 대웅전 외벽화



조계사 어린이 수계법회.

옷에 향기가 스며들 듯, '훈습'의 태교

인디언 여성들은 아기를 가지면 태아에게 평화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해주고, 자연의 소리를 들려준다. 어느 문화권이든 부모가 되면 태중의 생명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저절로 알게 된다. '부모의 선한 행동이 아이에게 미쳐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은 태아를 품은 부모이기에 본능적으로 가능한, 위대하고 신성한 과업이다.

마야부인은 싯다르타를 잉태했을 때, 남편 정반왕에게 "중생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몸과 말과 뜻으로 선을 닦으며, 죄수들을 널리 용서해 풀어주고, 보시로 가난한 이를 구제하도록" 부탁하였다. 아기를 위해 아버지로서 마음을 닦아 태교에 힘써주고, 왕으로서 베풀 수 있는 선과 자비를 다하도록 청한 것이다. 이전 존재의 업과 부모의 업이 작용하여 새 생명의 씨앗이 맺어졌지만, 태아는 잉태 순간부터 현세의 주체적 존재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참으로 중요하다. 부모는 태아보다 능동적 입장에서 서로의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부모의 선근(善根) 공덕이 태아에게 전달되면, 태아의 업 종자가 자력으로 선업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훈습(薰習)'이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옷에 향기가 계속 스며들면 옷 자체가 향기를 만드는 원인이 되듯이, 부모의 지극한 태교가 아기에게 배어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불설포태경(佛說胞胎經)〉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으면 태중 아기가 불안하며, 기름기 많거나 없는 것을 먹어도 그러하다… 음식이 고르지 못하거나, 색욕이 과하거나, 바람받이에 있거나, 나무에 올라도 아기가 불안해하니… 그 고뇌와 근심과 어려움이 이러하다"고 하였다.

전통 태교는 출발점에 대한 인식이 현대와 달랐다. 대개는 아기를 잉태한 순간부터 태교가 시작된다고 보지만, 옛사람들은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잉태 전부터 생명의 탄생을 경건하게 준비한 것이다. 부모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 심리적 건강이 장차 모태에 들어설 새 생명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우연이라 보지 않고, 평소 심신을 가다듬으며 소중한 새 생명과 인연을 가꾼 것은 매우 불교적이다. 일명 '씨 내리기 날'이라 부르는 귀숙일(貴宿日)을 받았던 것도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해 새 생명을 맞기 위함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아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되는 지혜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한 단계씩 고비를 넘기며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는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삼칠일을 지나 백일과 돌을 맞을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다. 특히 귀한 자식일수록 악귀가 해코지한다고 여겨 이름도 '개똥이 · 천둥이' 등으로 천하게 지어 부르다가, 중요한 시기를 한 단계씩 거치면서 무사히 고비를 넘기면 안도감과 함께 공동체의 잔치로 축원하였다.

불자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사찰에 이름 올리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사시불공을 올리는 스님이 부처님 전에 그날의 기도자 이름을 읊을 때, 아기를 위한 축원 기도를 청하기 위함이다. 축원대상이 불보살께 공양 올리는 공덕으로 가피를 받는다는 구도를 지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중요한 날마다 축원 기도를 청하는 것이다.

출생의례가 따르는 삼칠일(3 · 7일), 백일, 돌은 시기마다 상징성이 각기 다르다. 출생 직후인 삼칠일이 금기와 근신에 중점을 두는 시기라면, 백일은 심리적 · 상징적으로 한고비를 넘어서는 지점에 해당하고, 온전히 한 해를 무사히 보낸 돌은 실제 고비를 넘겼다고 보아 본격적인 축하가 따르는 시기이다.

삼칠일은 출생의례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금기의 시간이다.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는 부정(不淨)에 노출돼 있다고 보아 금줄을 치면서 외부와 격리하는 일이 핵심을 이룬다. 또한 초이레, 두이레, 세이레마다 상을 차려놓고 삼신할머니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빌었다. 아기는 이레마다 깃이 없는 옷에서 있는 옷으로, 몸을 감싸는 강보에서 저고리로, 저고리에서 바지 저고리로 바꾸어 입혔다. 이는 성장에 따른 실제적 대응이자 미완의 존재가 온전한 생명체로 진전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다.

또한 산모의 기력을 북돋우기 좋은 음식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불수산(佛手散)이라는 탕제를 달여 먹이기도 하였다. '부처님의 손'이라는 이름처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한 것이다. 이처럼 삼칠일은 갓 태어나 외부세계에 노출된 아기와 오랜 산고를 거쳐 회복이 필요한 산모를 물리적 · 관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 하겠다.

백일은 채워야 할 기간, 많은 날을 뜻하는 상징적 기간이다. 백(百)의 고어는 '온'이고 '모든 것'를 뜻한다. 단군신화에서 사람 되기를 간청한 곰과 범에게, 환웅(桓雄)은 "굴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으며 백일 간 인내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이때의 백일금기[百日忌]가 신의(神意)를 얻을 만큼 꾸준히 근신하라는 의미였듯이, '백일기도'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감응 받을 수 있다는 종교적 기간으로 정착되어 있다.

돌은 가장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출생의례 단계이다. 생후 1년의 돌맞이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뜻하여, 불공을 올리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며 감사와 축원이 따르는 것이다. 아이는 이제 세상에 나와 친구를 사귀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점차 뚜렷한 자아를 형성하며 성장해 갈 터이다.

부처님 당시 수달타 장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삼귀의와 오행을 받도록 가르치고, 자라서 지견(知見)이 생겼을 때 다시 계행(戒行)을 가르친다" 하였다. 불성(佛性)을 지닌 모든 아이가,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